

주체105(2016)년을 국방력강화의 획기적전환의 해로 빛내이신 현명한 령도

최 광 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해에 주체조선의 국방력강화에서 획기적전환이 이룩되여 우리 조국이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올랐습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진행된 주체105(2016)년 우리 조국땅우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날로 악랄해지는 핵전쟁위협에 대처한 첫 수소탄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것을 비롯하여 국방력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였다. 영웅한 인민군대는 적들의 무모한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였으며 무적강군의 정치사상적면모와 군사기술적준비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었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장이 펼쳐진 지난해에 나라의 국방력강화에서 획기적전환이 이룩되게 된것은 인민군대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과업들을 제시해주시고 주체적혁명무력, 국방력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현지시찰과 불철주야의 헌신과 로고를 다 바쳐나가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주체105(2016)년을 국방력강화의 획기적전환의 해로 빛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전군에 당의 유일적령군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신것이다.

당의 령도는 인민군대의 생명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전군에 당의 유일적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수령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로서의 인민군대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빛내이며 군건설과 군사활동을 철저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진행해나갈수 있다.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군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심화시켜 인민군대를 완전무결한 당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국방력강화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5(2016)년 새해를 맞으며 하신 신년사에서 전군을 당의 유일적령군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군,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견결한 당의 군대로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고 당의 유일적령군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심화시켜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5(2016)년 새해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를 축하방문하시고 하신 강령적인 연설과 2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

원회 련합회의 확대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결론에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전군에 당의 유일적령군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시킬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인민군대는 오직 최고사령관이 가리키는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주체105(2016)년 5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인민군장병들은 그 어떤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당중앙과 영원히 사상과 뜻, 운명을 같이하는 진정한 혁명동지, 혁명전우가 되여야 하며 당중앙을 결사보위하는 천겹만겹의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안에 당의 명령일화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결사관철하는 혁명적군풍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인민군대에서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원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결사옹위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렸으며 전군에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앞장에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며 원수님의 명령지시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결사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확고히 세워나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군에 당의 유일적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 인민군대는 당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로서의 면모를 더욱 완전무결하게 갖추게 되어 국방력강화에서 획기적전환의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105(2016)년을 국방력강화의 획기적전환의 해로 빛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전군을 당의 사상으로 일색화되고 불굴의 신념과 도덕의리로 굳게 뭉친 전위대로 만든것이다.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정치군사사업의 총적과업으로 틀어쥐고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는데 전군을 항일의 총폭탄정신이 깎 들어찬 수령결사옹위의 대오로, 무적필승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 국방력강화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근본 담보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중시하시고 이끌어오신 군대중운동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며 결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발기하신 20돛이 되는 주체105(2016)년에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모든 부대들을 항일의 7련대로, 전화의 근위부대들로 만들데 대한 전투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특히 주체105(2016)년 8월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이후 인민군대의 첫 대회로 제3차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열성자대회를 소집하시고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연설에서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은 당군건설의 총로선이며 오늘의 시대적요구를 반영한 가장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으며 항일의 오중흡7련대의 나팔소리가 전군에 힘있게 메아리치게 하여 시

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자는것이 당의 의도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군이 항일의 7련대, 전화의 근위부대가 될데 대한 전투적구호를 제시해주시고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기와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3차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열성자대회는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인민군대를 당과 혁명보위의 결정체로 만들며 전군에 대중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역사적인 대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롭게 지펴주신 군대중운동의 봉화를 높이 들고 인민군대에서는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군인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전군이 1970년대와 같은 대중운동열풍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도록 하기 위한 화선식선전선동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으며 오늘의 오중흡7련대대오는 나날이 늘어났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군에 세차게 타오른 군대중운동의 불길속에 전군을 불굴의 신념과 도덕의리로 굳게 뭉친 전위대오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서 전환을 일으켜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에서는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를 쌍기둥으로 틀어쥐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을데 대하여 여러차례 강조하시면서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당정치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전군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일색화되고 불굴의 신념과 도덕의리로 굳게 뭉친 전위대오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인민군대의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에서는 필수5대교양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침입식으로 힘있게 벌려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 진짜배기혁명가로, 신념과 도덕의 최강자, 창조의 거인으로 키워나갔으며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책동에 대처하여 혁명적경각성을 더욱 높이고 전군에 혁명적인 생활기풍과 도덕기풍을 전면적으로 확립해나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철두철미 훈련제일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싸움준비완성에 모를 박고 모든 사업을 조직전개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리고 정력적인 군령도로 모든 군인들을 **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현대전의 능수, 진짜배기싸움군들로 준비시켜나가시였으며 전군이 고도의 격동태세를 견지하고 전쟁준비완성에 총력을 집중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5(2016)년 1월초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들의 단문포사격경기를 통하여 새해 훈련혁명의 장엄한 첫 포성을 울리도록 하시였으며 대련합부대별 녀성방사포병사격경기와 방사포병중대사격경기들을 지도하시고 주체적포병무력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밝혀주시면서 포병훈련에서 새로운 전변을 일으켜 포병무력의 싸움준비를 질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5(2016)년 한해동안에만도 서남전선수역 최남단에 위치한 갈리도전초기지와 장재도방어대를 비롯한 군부대들을 시찰하시였으며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들사이의 쌍방실동훈련 등 수많은 훈련들과 연습들이 실전적환경에서 진행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시찰과 군사훈련지도는 우리 군인

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길, 무적의 강군을 안아키우시는 헌신의 길이였다.

사랑하는 전사들이 못내 그리우시여 사나운 파도를 헤치시며 적들과 직접 총부리를 마주하고있는 서남전선수역의 전초기지들도 찾아주시고 바람세찬 활주로에 오래도록 서계시며 비행사들의 훈련모습도 보여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은 우리 군인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키우는 자양분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는 주체105(2016)년에 완벽한 공격능력과 방어능력을 겸비하고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도전에도 단호한 혁명전쟁으로 대담할 수 있게 만단의 전투준비상태를 갖추어나갔으며 조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침략의 본거지들을 가차없이 초토화해버리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실현할 백두산혁명강군의 결전의지와 전투실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대중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105(2016)년에 우리 인민군대는 항일의 수령결사옹위정신, 육탄자폭정신으로 만장약한 오늘의 항일의 7련대로, 그 어떤 강적도 일격에 격파해버릴 최정예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주체105(2016)년을 국방력강화의 획기적전환의 해로 빛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국방공업부문에서 자강력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식의 현대적이고 위력한 주체무기들을 다계단으로 연구개발완성하도록 하신것이다.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우리 식의 강위력한 첨단공격무기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실전배비하는것은 인민군대의 무장장비수준을 세계첨단수준에 올려세워 적들의 끊임없는 침략전쟁책동을 완전히 제압하고 조국과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다.

21세기 세계적인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무장장비가 나날이 현대화되어 전쟁양상이 달라지고있는 현실과 각종 전략전술무기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들에 끌어들이고있는 미제의 가증되는 군사적책동은 인민군대의 무장력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5(2016)년에 우리 식의 위력하고 발전된 핵무기들과 그 운반수단들, 첨단무기개발목표들을 제시해주시고 국방과학전사들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며 조국통일대전의 진군길을 열어제길 주체무기들을 다계단으로 만들어내도록 끊임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나가지였다.

주체105(2016)년 1월 6일 조선로동당의 전략적결심에 따라 우리 핵무기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하고 3월에는 우리 식의 위력한 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들어냈으며 9월에는 새로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폭발시험을 성과적으로 단행하여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들을 련이어 안아왔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장비하게 되였으며 우리의 핵무기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였다.

주체105(2016)년 4월과 8월 국방공업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2차례의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대성공함으로써 우리의 핵무력강화에서 커다란 군사적진보를 이룩하고 우리 해군은 적대세력들을 임의의 수역에서 타격소멸할수 있는 높은

수준의 위력한 공격무기를 갖추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기와 세심한 지도밑에 자력자강의 무기를 틀어쥐고 고심어린 연구사업을 진행해온 국방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식으로 연구개발하고 설계제작한 탄도로켓트 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과 대출력고체로켓트발동기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트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시험에서 대성공하고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트《화성-10》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앞으로 더 높은 수준의 전략무기체계개발을 위한 확고한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이렇듯 주체105(2016)년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자립적국방공업을 튼튼한 토대로 하여 우리 식의 강위력한 첨단무장장비들을 련속적으로 개발완성하기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현대적인 첨단무장장비들을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다.

참으로 주체105(2016)년 온 한해 주체적혁명무력, 국방력강화를 위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군대는 백두산총대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최정예혁명강군,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무적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으며 지난해 주체조선의 국방력강화에서는 획기적전환이 이룩되어 우리 조국은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올랐다.

온 나라 천만군민은 지난해를 국방력강화의 획기적전환의 해로 빛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뜻깊은 올해에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고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빈틈없이 갖추어나가야 할것이다.